

vol.35

March, 2019

모니터링 리포트

이 사람의 향기

- 모든 것의 처음은 낯설다
: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KIADA), 최영목 대표


포커스

- 장애인의 날, 4월 언론보도에 대한 기대
-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사업 소개
- 2018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

이슈포착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 이렇게 한다
: 이문희 UNCRPD NGO연대 보고서 총괄위원장
- '장애' 아닌 '사람'을 보아야
: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 류승연 작가
-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 사업 결과

모니터링 리포트 | vol.35 March, 2019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민법인한국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시민법인한국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진 출처 www.myswitzerland.com〉

‘부러진 의자(Broken Chair)’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본부(Place des Nations)는 전 세계에서 국제회의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이다. 주로 인권과 평화, 군축 논의가 진행된다.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부에 들어서는 길목 광장에 위치한 12미터 높이의 웅장함과 위엄을 갖춘 ‘부러진 의자(Broken Chair)’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사람들은 이 조형물을 ‘평화’를 상징하는 21세기 대표적인 미술작품으로 평가한다. 유엔은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태평성대’를 꿈꾼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인권-개발(경제적 번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부러진 의자의 위태로운 모습으로 경고하는 듯하다. 실제 이작품의 기획 의도는 대인지뢰 희생자(장애인)가 처한 곤궁한 처지를 형상화하고 대인지뢰 금지조약(Ottawa Treaty)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1997년 당시 ‘Handicap International’이라는 국제 비영리 조직이 조각가 다니엘 버셋(Daniel Berset)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이다. 예술작품이라 할지라도 부러진 의자가 지뢰로 다리 일부를 잃은 장애인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은 불편하다. 앉을 수 있다는 고유한 기능을 상실한 의자의 형상이 장애인을 인간 또는 정상인, 완전함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Integrity)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말해, 신체적 기능을 상실했거나,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 모두는 당연하게도 ‘완전한’ 존재다.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Contents

2019 봄 | Spring

- 02 발행인 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신입대표 이권희입니다.
- 04 편집자 편지
따로, 또 같이
- 06 이 사람의 향기
모든 것의 ‘처음’은 낯설다
- 16 포커스 1
장애인의 날,
4월 언론보도에 대한 기대
- 22 포커스 2
지역사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사업 소개
의정활동과 예산 모니터링을
지역 행정부에 맞게 통합 분석
- 26 포커스 3
열린관광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유지관리·문제 사례 모니터링은 필수
- 38 이슈포착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
이렇게 한다!
- 42 이슈포착 2
‘장애’ 아닌 ‘사람’을 보아야
- 46 이슈포착 3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
다동·무교동·종로·청계 관광특구 44개 업소
장애인 등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
- 52 영화평
평범한 장애인을 기다리며
이한 감독의 〈중인〉
- 58 포럼은 지금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 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물음표와느낌표 02) 822-0772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신임대표 이권희 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라는 왜곡된 사회인식 속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기 어려웠습니다. 일상적인 차별이 사회전반에서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 장애인복지가 발전했다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확대, 장애인 관련 예산 등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외형은 나아지고 있을지언정,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있어 '징벌적' 성격은 빠져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서비스 시간 및 단가 문제로 인해 이용자가 자기선택권 및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활동지원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애꿎은 중계기관에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총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정책수립 과정에, 권리의 주체이며 최종 소비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전문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결정, 사회·경제적 유무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무엇보다 우리가 염원했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의

진전이 우리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디고 멀리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법인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와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의 획득, 사회·경제적 조건의 확보,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유권은 물론,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및 소통구조의 확장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 관련 의정활동·법률 및 조례·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실제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이란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만이 아니라 통계 처리와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장애인 운동의 아젠다(Agenda)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법인은 첫걸음을 내딛을 때의 그 초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 참여와 소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성숙한 변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모니터링 리포트가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장애인운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3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권희**

“따로”, 또 “같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하 ‘협약’) 당사국의 국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법·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당사국 보고서는 물론 국가인권기구와 NGO의견을 경청합니다. 우리 장애계 시민사회는 쟁점 목록 작성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정부 보고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국내 이행실태를 담은 NGO 연대보고서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정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통상 국가인권기구의 의견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독립성을 갖춘 경우 국가인권기구 의견에 대한 유엔의 신뢰도는 높습니다. 자화자찬인 정부보고서와 이에 비판적이기만 한 NGO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객관적 판단의 원천은 보고서에 담긴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의 명확성이겠지요. 이번호 모니터링리포트 <이슈포착1>에서도 NGO보고서 작성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이해당사자의 요구, 국가인권기구와 유엔의 권고가 한 목소리로 전달되었을 때, 정부 정책 변화는 속도를 내기 마련입니다. 인권위의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속에 장애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4월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어 일 년 중 가장 많은 장애인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작년 진행한 언론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4월 언론보도에 대한 기대를 <포커스1>에 담아보았습니다. <포커스2>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을 접근하고 분석하기 위해, 우리 센터의 대표적인 지속사업인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과 ‘정책예산모니터링’을 통합한 ‘지역사회모니터링’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법규 모니터링’까지 포함해 지자체의 장애인정책 논의 과정(의정활동)과 결과물(예산과 자치법규)을 유기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3>는 지난해 진행한 ‘관광환경모니터링’ 결과를 담았습니다. 모

니터링 결과물은 한국관광공사가 열린 관광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접근성 개선 지원, 사후 관리에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슈포착3>는 ‘서울시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주변 관광특구가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관광약자인 장애인이 직접 개선에 참여하는 이 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사람의 향기>에서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를 직접 만들고 주최해 오고 있는 ‘빛소리친구들’ 최영목 대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 온 과정이나 ‘최초’ 또는 ‘처음’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더 와 닿아서 좋습니다. <이슈포착2>에서는 장애학생 부모이자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 류승연 작가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것이 장애인식개선의 시작이라는 낯설지 않은 일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류미례 감독의 <영화평>은 늘 그랬듯 생각이 깊이를 더해줍니다. 다양한 영화를 넘나들며, 장면과 대사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한 가지 주제로 연결시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읽고 난 후 차분히 눈을 감고 영화 속 장면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9. 1월, 건강보험과 국내법, 생명보험 약관이 장애인 차별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제25조(건강)와 개인진정 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강제노동, 노조결성과 단체협약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 형법, 소방공무원법 등의 조항 때문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물론 관련 국내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향후 그 과정과 성과가 모니터링리포트에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2019년 3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모든 것의 '처음'은 낯설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
(사)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

정리 | 윤선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그가 하는 일은 낯설다. 장애인들이 예술적 재능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용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공연도 기획하고 무용가도 키우고 무용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생소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의 처음은 항상 낯설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생소했던 것도 언젠가는 낯익은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생각보다 길들여지는 데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생소한 것을 참지 못한다. 장애인 무용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그날까지, 이 낯설음에 익숙해지고 싶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가 올해 4회를 맞는다. 세계 최초의 장애인국제무용제다. 대한민국을 플랫폼으로 개최하는 세계 장애인들의 무용축제. KIADA를 만들고 이끌어 온 (사)빛소리친구들의 최영묵 대표를 만났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빛소리친구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 무용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빛소리친구들은 예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가치와 존엄성, 편견 대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세워진 단체입니다.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장애인 부모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법이 강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처음엔 생똥맞다 생각했죠. 이게 뭘까. 법이 강해질수록 앞에서는 지키는 척 하지만, 일상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만연하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선한 이웃, 장애인을 따듯하게 바라봐주는 시선, 그런 인식의 문제가 더 절실할 수도 있겠다. 그건 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당시 얼 쇼리스(Earl Shorris)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인문학'으로 유명한 분이였죠. 이분이 수많은 청소년 범죄자를 상담했는데, 이들에게 인문학적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던 터라 그 교수의 말처럼 문화적 경험의 결핍을 장애인들에게 대비해 봤어요. 예술분야 특히 무용에 적용해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음악은 가끔 주목받는 장애인 예술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용은 없었죠. 지체장애인이

◀사진은 (사)빛소리친구들 최영묵대표

몸을 움직여 무용을 한다? 휠체어 댄스라는 스포츠는 있었습니다. 방송에 몇 번 소개된 정도인데, 자세히 보면 주인공은 비장애인들이었어요. 장애인들은 구색 맞추기 뭐 그런 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했던 김용우 씨가 마침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무용단을 같이 해보자 제안했죠. 전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무용단을 만들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에게 무용을 가르칠 선생님을 한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발레를 가르치는 장애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당신은 몸으로 동작을 보여줄 수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물어봤죠. '말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랄까. 장애인이 무용을 배운다고 할 때, 저 스스로도 틀에 갇혀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무용단을 만든 과정과 도움을 주신 분들, 기억에 남는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초창기엔, 전쟁에서 부상당한 영웅의 전설을 모티브로 장애인무용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10분만 배우면 춤을 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내용은 나약했지만 일단 시작했죠. 1회 교육 다르고 2회 교육 다른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였던 장애인들이 무용단원들이 되었고 이들과 함께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지하였어요. 장애인 무용단원들을 업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죠.

첫 공연을 무대에 올릴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우광혁 교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덕분에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무용이라는 공연을 올릴 수 있었죠. 지금처럼 30분, 한 시간 그런 공연이 아니었어요. 길어야 5분, 10분 정도. 짧은 공연이었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광혁 교수(현 빛소리친구들 예술감독)가 걱정 말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안되면 자기 혼자서라도 책임지고 공연해 보겠다고.

공연을 진행할수록 단원들 춤 실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겼죠. 그래서 무용판에 한번 화두를 던져보자 생각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모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연구 프로젝트를 냈는데 선정된 거죠. 당시 프로젝트 조건으로 전문 교수 2명의 참여가 필요 했어요. 장애인들과 춤추는 교육프로젝트를 만들자고 하니까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용인대학교 특수교육하시는 이인경 교수님이 도움을 주셔서 'FUN뽀한 댄스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죠. 장애인 단원들의 열정과 많은 분들의 헌신, 후원이 모여 공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펀&아트컴퍼니(FUN&ART COMPANY)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전문예술공연단이죠. 춤에 열정을 지닌 척수장애인과 소아마비 장애인 등 10여 명이 주축이 되었어요. 무용단 취지에 공감한 비장애인 전문 무용수 10여명도 합류 했어요. 휠체어 댄스 스포츠 선수였던 김용우 씨,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원장인 우광혁 교수, 이애현 교수(현 경북도립한국무용단 안무가)도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 전문 공연단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FUN뽀 댄스 시리즈도 개발하고 국내외 공연활동도 활발하게 했죠.

장애 유형에 맞는 무용동작과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장애인 무용 교육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과정과 수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메이드(MADE, 전문장애인무용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틀이 잡혔습니다. 올해는 58명이 수강을 하구요. 소문 듣고 오는 중증장애인 친구들도 있고. 현재는 (사)빛소리친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요. 일단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건상 일대일 맞춤 수업까지는 아직 힘든 단계라. 자폐나 발달장애 같은 친구들도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면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흉내라도 내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예로 다리가 불편한 한 친구는 발레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와서 점핑수업을 해요. 물론 잘 안되죠. 그럼 선생님이 살짝 들어서 돕고, 뭐 그런 식으로. 귀가 안 들려도 뭐가 안 되도 몸으로 소통하자.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예상보다 교육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메이드(MADE) 여기서 춤을 배우면 국립무용단과 춤춘다고 생각할 만큼 자부심이 있어요. 메이드 교육은 9개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발



" 펀&아트컴퍼니(FUN&ART COMPANY)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전문예술공연단이죠. 춤에 열정을 지닌 척수장애인과
 소아마비 장애인 등 10여 명이 주축이 되었구요. 무용단
 취지에 공감한 비장애인 전문 무용수 10여명도 합류 했어요. "

레와 한국무용, 현대무용, 농인과 청각장애인 대상의 한국무용 ‘허브’와 현대무용 ‘민들레’, 뇌변병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댄스 ‘표현’과 ‘움직임’, 대개 한 반에 7-10명 남짓한 수강생을 3명의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국제장애인무용제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에 대한 소개와 국제무용제를 만든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공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국내 장애인무용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당시 무용을 하는 국내 장애인 단체나 모임들은 있었지만, 학예회·단체 발표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죠. 무용제를 할 만한 수준의 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장애인 무용단체를 찾아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양 아람누리극장과 대구에서 무용제를 열었어요. 첫 회 때는 돈이 없으니까 핀란드에서 장애인 무용가 한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두 번의 공연 다 반응이 좋아서 확신이 좀 서더라구요. 이후로 외국의 장애인 무용단체나 장애인 무용가들을 만나보면서 이왕이면 국제적으로 무용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부산 국제무용제 폐막식에서 초청 공연을 두 번 했어요. 폐막식 공연 공모가 났는데,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예술 감독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말하는 다양성이 뭐냐, 진짜 다양성을 보여주려면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죠. 두 달 뒤쯤 연락이 왔어요. 예술 감독이 고민을 엄청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당시 공연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우리 무용 팀이 잘했거든요.

부산으로 갈 때는 무용수들하고 공연 소품으로 오렌지 세 상자를 간신히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 보니까 조명부터 스텝까지 다 데려온 겁니다. 폐막식 때 공연이 두 개였는데, 상대팀 조명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거기서 우리 안무가가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민감한 건 잘 몰랐죠. 그래도 하자.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장애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작품이 보인 거죠. 공연을 마치고 방송국부터 인터뷰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 경험들. 공연비용은 간신히 교통비 받는 정도였는데, 가면 적자죠. 그래도 다니면서 자꾸 알리는 거죠. 장애인 무용단체가 있다는 걸. 부산 국제 무용제 공연 반응 이후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올해의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를 동시대의 장애인 무용예술가와 공연예술가들의 협업, 상호이해를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의 장애인 무용축제로 만들고 합니다. 올해는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 예정입니다. 국내 참여 신청 공연작품은 이미 공모가 마감되었어요.

국내 무용팀 3팀과 기획작 4팀, 직접 조사해 초청한 독일-아르헨티나팀, 스페인팀, 일본팀, 쿠바팀이 참가 예정이구요. 매년 1,800여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5박6일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공연 외에도 예술 감독 아담 벤자민(Adam abaenjamin)과 함께 하는 장애인 무용가 교육 워크숍도 4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계의 이슈는 생존권과 기본권에서 나아가 점차 문화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 또는 대안도 좋구요.

각 부처 간의 협력 및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들이 거의 일자리 애길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적합도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부분은 비전문적이고, 사실 관계 파악이 안 된 내용으로 기술된 것 같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새로운 예술정책, 문화비전 2030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나 다양성 확보 사업에 장애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 추진계획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 자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일자리, 향유 창작 지원사업은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 실행주체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 문화재단에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액으로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실적 위주의 지원체계입니다. 형식적인 지원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

다고 보입니다. 제대로된 예술작품에는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5팀 줄 예산을 쪼개서 10팀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이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생활문화예술처럼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준 있는 예술을 하는 팀들에 대한 지원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으로 키우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이 있어서 스포츠 스타가 나오고 또 그런 스타를 꿈꾸는 스포츠 저변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장애인문화예술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빛소리친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빛소리친구들은 최근 'Art 4' 운동과 예술적 가치로 생각하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rt 4 운동은 '예술의 가능성, 예술의 즐거움, 예술의 다양성, 예술의 활동성'을 가지고 희망의 씨를 뿌리는 운동입니다. 예술적 가치로 생각하기 프로젝트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혐오시설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활동이 전문 예술인의 길로, 예술적 가치로 장애인이란 편견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성숙도 기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빛소리 친구들의 도전이 성공하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여러분 박수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공연장 대관이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최영묵 대표는 말한다. 장애인들이 예술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장애를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도 불편하지만, 불우 이웃 돕기 식으로 공연장에 오는 관객도 그는 반갑지 않다. 그럴수록 적극적인 의지로 세상에 나와서 장애인 예술가들이 기회와 권리를 찾아 활동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행정가와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6년부터 2019년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포스터▶



장애인의 날, 4월 언론보도에 대한 기대

편집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모니터링리ports를 받아보시는 분이면 다를 수 있겠네요. 대다수는 장애인을 보지 못합니다. 안보여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지요. 반면 평소 접할 기회가 없는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 연예인은 자주 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말이지요. 자주 노출된다고 좋은 건 아니지요. 우리는 기사로 인해 곤혹을 치르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모습에 익숙해 있으니까요.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장애인도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시선과 표현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3월(2018평창 동계패럴림픽,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사망), 4월(장애인의 날, 세계자폐인의 날), 10월(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럴게임)에 장애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기사가 많았던 만큼 표현법이나 시각의 문제를 지적했던 기사도 많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3월과 10월은 없지만 작년과 같은 4월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어서 연중 가장 많은 장애인 관련기사가 실리는 시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 4월 기사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올해 언론보도에 기대하는 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석 카테고리는 기사의 양, 보도 지면, 그리고 주로 다루는 장애 유형, 기사의 내용입니다.

보다 다양한 장애유형을 다루었으면

2018년 10대 일간지⁽¹⁾ 장애인 관련 기사 모니터링은 9개월(3월~11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총 2,104건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34건입니다. 10대 일간지가 매

(1)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가나다 순)

월 장애인 관련 기사 23건을 평균적으로 보도한 셈입니다. 4월에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263건입니다.

표1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의 양 비교

(단위: 건)

구분	3월~9월 평균	4월
	234	264

작년에는 장애인의 날 하루 동안 4월 한 달 기사분량 264건의 20.45%에 해당하는 5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전후 3일에 해당하는 17일~23일 기준으로는 47.73%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애이슈를 특정 시기 이벤트성으로 다룬다는 비판도 있지만, 언론이 기사의 '시의성'을 고려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왕이면 당사자 관점의 욕구를 반영하는 보도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매체를 통해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이슈로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언론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표2 기사의 초점이 되는 장애유형 비교

(단위: 건)

구분	3월~9월 평균	4월
지체	49.8	29
뇌병변	4.1	5
시각	10.8	11
청각언어	5	7
안면	0.5	0
신장	0.1	1
심장	0.2	0
간	0	0

호흡기	0	0
장루요루	0	0
뇌전증	1	3
발달	24.1	40
정신	11.2	15
범분야	127.2	153
계	234	264

기사가 다루고 있는 장애유형을 비교해 보면, 평소 50% 가까이 지체장애에 편중되어 있던 것이 4월에는 다소 완화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유형을 다루는 기사가 늘어난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 신체장애나 안면장애를 다루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호흡기 장애 등 내부 신체장애인들의 고충과 지원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4월의 언론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다양한 이슈를 인권과 자립생활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를

아래 보도지면 비교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장애인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루는 지면답게 4월 사회면 기사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오피니언과 특집기획 지면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이 기사의 '시의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장애 이슈를 언론사의 공식 입장과 심층기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평소 장애인 이슈를 다루는 것에 인색했던 경제면 비중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단절되거나 심각한 제약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각이란 점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주체로 장애인을 보도 지면에 등

장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왕이면 차별금지과 의무고용 관점을 넘어 주류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근로의 권리를 보다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표3 장애관련 기사 보도지면 비교

(단위: 건)

구분	3월~9월 평균	4월
1면	9.6	10
종합	9.6	6
정치	2.8	2
사회	41.7	77
경제	8	16
국제	1.8	3
스포츠	54.4	3
문화	10.1	9
인물	24	34
건강	3.2	3
오피니언	23	33
특집기획	11.7	22
기타	34.1	46
계	234	264

아래 <표4>를 보면 4월엔 다른 달과 비교해 노동·취업, 인권·권리 분야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다르지 않아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들도 삶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는 인권의 문제이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인권/권리 분야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 보도가 늘어난 것은 더욱 더 의미가 있습니다.

표4 장애 관련 기사 내용 비교


(단위: 건)

구분	3월~9월 평균	4월
노동/취업	14.7	36
교육/학습	12.2	9
접근성/편의	16.9	19
스포츠/레저	75	5
문화관광예술	17.8	22
보건/재활	12	3
소득/생계	1.8	0
자립탈시설	4.1	5
제도/행정	20.7	29
인권/권리	19.6	53
인물/인터뷰	20.8	37
자선/봉사	7.1	11
기타	11.3	35
계	234	264


10대 일간지들은 지난해 9개월 동안 보도한 2,104건의 장애관련 기사 중 인권·권리(176건, 8.4%), 자립·탈시설(37건, 1.8%) 관련 보도에 매우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해당 분야에 대해 언론매체가 관심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분류기준에 따른 통계이기도 하니깐요. 바램이 있다면, 장애계의 다양한 이슈를 인권과 자립생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한 기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표 구분 란에 있는 대부분 분야가 실은 인권 분야이고 동시에 자립생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2019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

“장애인의 눈으로 본” 언론 모니터링



- 01** 10대 종합일간지의 장애관련기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장애관련 표현법과 용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전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
- 02** 부적절한 장애관련 표현법과 용어에 대한 지속적인 리포트 제공을 통해 언론사의 장애 감수성 제고 및 표현법 시정
- 03** '이 달의 좋은기사, 칼럼, 사진' 공개를 통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장애관련 보도 유도
- 04** 매월 전 달의 장애인 관련기사를 분석한 언론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지면신문·인터넷신문·언론 협회와 단체·정부기관·장애인단체 등 약 1000곳에 리포트 발송



지역사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사업 소개 의정활동과 예산 모니터링을 지역 행정부에 맞게 통합 분석

현근식 경기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장애인정책의 최종 집행 공간은 바로 지역사회다. 당사자들은 거주지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카드도 발급받는다.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지역의 실핏줄인 주민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책을 실행한다. 장애인정책도 대부분 이 지자체의 서비스를 거쳐 소비자인 장애인에게 전달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실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의 대부분은 각급 지자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감시가 바로 지역사회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예산을 지자체별로 분석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예산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대비, 감독함으로써 행정부에 적절한 비교 자료 및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선 6기 지방의회까지 꾸준히 수행한 의정모니터링을 예산 현황과 결합해 지방자치에 걸맞게 장애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기존에 10년 넘게 해왔던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장애인예산 모니터링을 지역의 행정부 모니터링에 맞게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광역지자체 장애 관련 예산과 의정 발언을 조사하여 연도별, 민선 기수별, 성격별, 자치 단체별 비교 자료를 제공. 둘째, 그 해 이슈가 되는 장애인 정책사업의 현황을 분석 평가.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자체에 파급되도록 한다. 셋째, 장애 인지 예산제도, 개인 예산제도 같은 선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를 선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은, 우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단원들이 광역자치체의 장애인정책 예산과 의정활동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정책의 내용과 논의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피드백(feedback)을 지자체에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정부와 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견제하고 돕는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주요 장애인 정책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우수 정책 사업을 타 지자체에도 적극 홍보하여 파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정책 의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고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사업의 세부내용과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관련 예산 및 의정발언 수집발체 기준 논의 • 학계, 장애계, 정책전문가 등 참여
모니터단 구성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모니터단 구성 • 교육: 모니터단+지역 활동가 참여, 실무교육 실시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세입, 세출예산서 수집 -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 민선7기 광역의회 1차년도(2018.7~2019.6) 회의록 현황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장애인관련 예산 발체 • 민선7기 광역의회 1차년도 발언 발체 • 장애인관련 예산 분석(재원별/성격별), 의정발언 평가 • 주요 장애인정책 의제 자료 및 우수사례 자료 수집
결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정책 분석 및 평가 • 주요 장애인정책사업의 현황 분석 • 우수정책사례 홍보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결과보고대회 결과발표 • 조사 결과를 각급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홍보

사업 일정 중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기존의 방법대로 광역의회 회의록을 찾아보고, 광역 시도청의 예산서를 살펴서 장애인관련 모니터링 데이터를 발췌하는 이 단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장애인정책 논의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개선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작업이다.

또한 모니터링 후 분석, 평가 작업은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주요 장애인정책 사업의 예산을 비교해 보고 또한 지역의회 의원들의 의정발언 및 논의를 살펴보면, 지자체간의 해당 장애인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차이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해 이슈가 되는 장애인정책 또는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요구를 더 깊이 있게 반영한 정책제안을 하거나 타 지자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정책의 비교분석은 지역의 특징과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장애인들이 정책의 어떤 부분을 더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 줄 것이다.

분석, 평가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그 지역사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체사업을 분석하는 것이다.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우수정책 사업이라면 이 아이টে를 전국적으로 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장애인 정책은 전국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몇 십 년 동안 장애인정책은 당사자를 불쌍한 수혜자로 만들고, 마치 생존만을 위한 먹이를 인색하게 주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곤 했다. 그도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마련해 지자체까지 일괄적으로 뿌리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 개개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도 받지 못해 목숨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함께 당사자가 지역에서 접촉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통합되어 사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촘촘하게 제공되는 맞춤형 사람중심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역사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지역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열린관광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유지관리·문제 사례 모니터링은 필수

윤선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오늘날 모든 사람은 장애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¹⁾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제약 받는 것은 관광활동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정부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개발, 관리하는 목적 또한 다르지 않다. 관광권의 보장을 통해 복지를 증진한다는 공적 측면이 있다. 열린관광지 사업도 그러하다.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열린관광지는 29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두의 관광권을 보장하는 접근 가능한 관광, 관광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는 사회적 관광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자로 떠오른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고려한 접근성과 관광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의 정책 전환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시행령은 이러한 관광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까. 장애인 관광환경에서 ‘정보 접근성과 인적 서비스 제공’만을 반영한 시행령은 장애인들의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있을까. 우리 센터는 관광지 여덟 곳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진행과 체크리스트 개요

2015년 지정 열린관광지 중 비교 대상지 선정이 가능한 4곳⁽²⁾을 표본으로, 일반관광지 중 표본과 유사 관광자원 또는 관광체험을 서비스하는 4곳⁽³⁾, 총 8곳을 선정했다. 장애인 모니터링 단원과 비장애인 단원의 2인 1조를 한 팀으로 구성, 8개의 관광지를 각 3차례씩 교차 조사했다. 평가 기준과 점수 환산은 <표1>과 같다. 단원들의 조사표 평가를 0점부터 3점까지 점수로 환산하였다. 1차, 2차, 3차 모니터링의 동일 평가항목 점수의 총합을 평균으로 환산, 평가와 해석에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평가항목 A’를 1차 팀은 미흡(1점), 2차 팀은 적정(3점), 3차 팀은 보통(2점)으로 평가했다면, 총점은 1점+3점+2점=6점이다. 따라서 ‘평가항목 A’의 평균 점수는 2.0점이다. 이는 <표1>에서 평균 점수 구간의 ‘보통’에 해당한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정도’의 시설이라 해석할 수 있다.⁽⁴⁾

표1 평가 기준과 점수 환산, 평균점수 해석

평가	환산점수	평균구간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과 점수의 해석
적정	3	3.0	혼자서 접근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정도
보통	2	2.0~2.9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접근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정도
미흡	1	1.0~1.9	조력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접근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
없음	0	0.0~0.9	관련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는 경우

표2 조사대상 관광지와 비교 관광지원

표본 관광지	대조 관광지	관광 자원
1. 순천시 순천만습지공원	1-1. 군산시 금강습지생태공원	습지·공원
2. 용인시 한국민속촌	2-1.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전통·문화
3. 통영시 한려수도케이블카	3-1. 부산시 송도해상케이블카	케이블카
4.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4-1. 삼척군 하이원 추추파크	기차체험

표3 모니터링 진행 개요

	1차 모니터링	2차·3차 모니터링	비고
조사 기간	2018년 9월~10월	2018년 11월~12월	
평가 기준	전동휠체어 사용 (중증)장애인의 접근성과 사용성		
단원 구성	(중증)장애인 단원과 비장애인 단원의 2인 1조		필요시 활동보조인 동행
조사 횟수	조사대상 관광지를 팀별로 각각 3차례씩 조사		

(1) 접근 가능한 관광의 정책 방향과 과제,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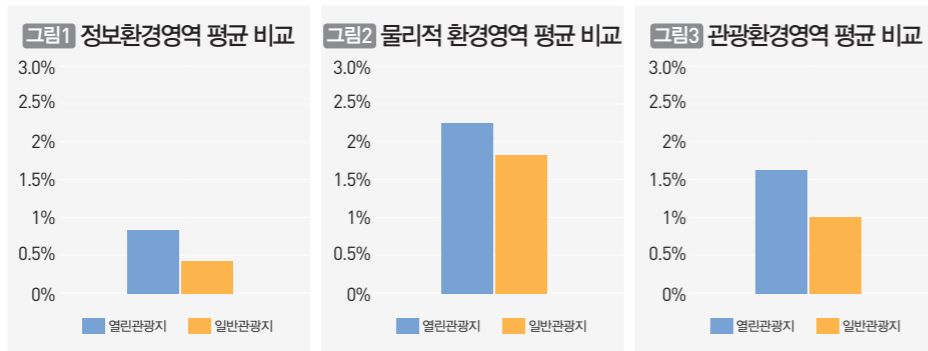
(2) 순천시 순천만습지공원, 통영시 한려수도케이블카, 용인시 한국민속촌,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3) 군산시 금강습지공원, 부산시 송도해상케이블카,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삼척시 하이원추추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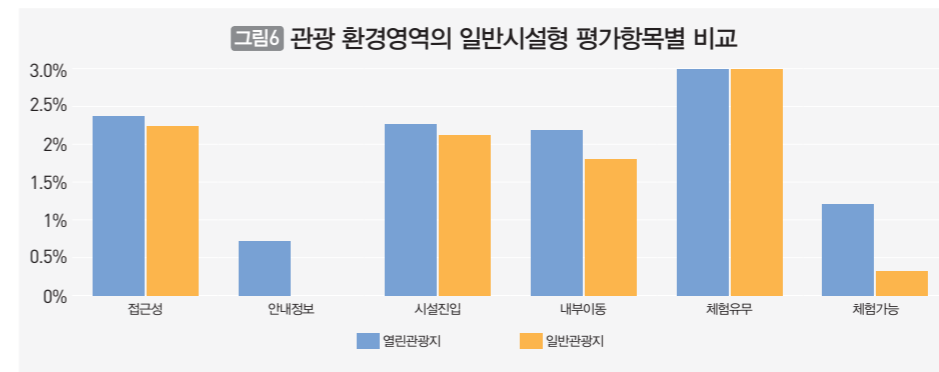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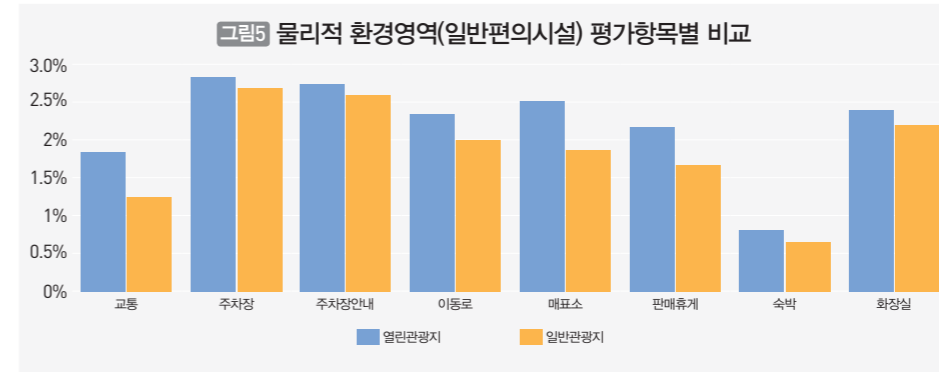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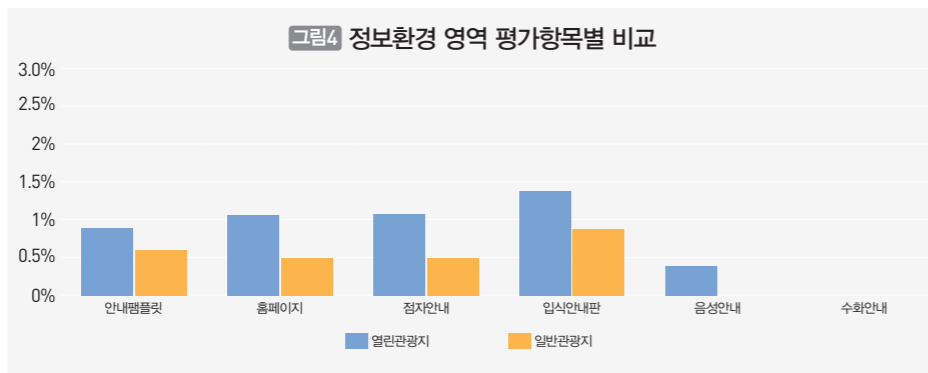
(4) 자세한 모니터링 방법과 결과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www.ableinfo.co.kr) 사업결과보고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린관광지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그림1〉, 〈그림2〉, 〈그림3〉은 열린관광지군 평균과 일반관광지군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정보환경 영역’과 ‘물리적 환경 영역’, ‘관광환경 영역’으로 비교한 결과, 3개의 영역별 비교에서 열린관광지군의 평균 점수가 일반관광지군의 평균 점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보환경 영역의 평가항목은 안내팸플릿, 홈페이지, 전자안내, 입식안내판, 음성안내, 수화안내이다. 물리적 환경 영역의 평가항목은 교통, 주차장, 주차장안내, 이동로, 매표소, 판매휴게시설, 숙박, 화장실이다. 관광 환경 영역의 일반시설형 평가항목은 접근성, 안내정보, 시설진입, 내부이동, 체험 유무, 체험 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항목별 결과는 〈그림4〉, 〈그림5〉, 〈그림6〉과 같다.



요약하면, 3개의 영역별 비교, 20개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 비교 모두에서 열린관광지군의 평균 점수는 일반관광지군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본이 적다는 것을 감안해도, 열린관광지의 접근성 개선공사가 장애인 관광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 지정과 접근성 개선공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이유다.

적극적인 관광지 선호도 반영한 지정 필요

열린관광지의 공모와 평가, 지정 과정에 ‘관광지 매력도와 장애인 관광수요자의 선호도’를 지금보다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선정 과정에도 ‘관광지 매력도’ 항목은 있다. 하지만, 지정된 결과를 놓고 보면,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중요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는 관광지를 열린관광지로 계속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의 관광수요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의견과 선호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 열린관광지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관광지와 연계되는 교통과 숙박, 식당 등 주변 환경도 열린관광지 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열린관광지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 관광지 자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열린관광지를 외딴 섬처럼 만들 수 있다. 장애인 누구도 갈 수 없고, 가려고 하지 않는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관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필수

이번 모니터링은 2015년 지정 열린관광지 6곳 중 4곳을 포함하고 있다. 개선 공사가 2015년 말 끝난 것을 감안하면, 지정된 지 약 3년 정도 지난 것이다. 지정 3년 차 열린관광지의 유지 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열린관광지 안내 팸플릿은 모든 열린관광지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의 경우 열린관광지용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와 지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열린관광지 정보가 관광지 현장의 안내판 정보와 달라 혼선을 주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저상 매표소는 단체객용 매표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촉지안내판 앞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었고, 야외무대의 장애인 관람석 이동로에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다.

휠체어 추천 이동로와 경사로의 경우 연결 부분의 단절이나 불필요한 턱이 생겼다. 장애인 화장실은 창고처럼 사용되거나 문은 고장이 났고 그나마 있는 자동문 버튼은 누르기도 힘들었다. 열린관광지 지정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확인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은 열린관광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관광, 고령인구, 장애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안전한 관광지를 연상시키는, 열린관광지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적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

● 사례 1 안내팸플릿 : 열린관광지 4곳 모두에서 열린관광지용 안내 팸플릿은 구할 수 없었다. 용인의 경우 관광 안내소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열린관광지로 지정

받은 사실과 열린관광지용 안내팸플릿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다른 열린관광지의 경우도 비슷했다.

● 사례 2 홈페이지와 입식안내판 : 홈페이지에 게재된 열린관광지용 장애인 편의 시설 지도와 관광지 현장의 팸플릿, 안내판의 내용이 달라 장애인 관광객에게 혼선을 주었다. <그림7>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홈페이지의 열린관광지용 지도다. <그림8>는 현장에 설치된 입식안내판이다. 비교해보면, 시설이름, 편의시설 내용 등 주요 안내정보가 다르다. 붉은 선은 서로 다른 편의시설 정보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 <그림7> 곡성 홈페이지의 열린관광지용 안내지도



▲ <그림8> 곡성 관광지의 입식안내판 안내지도

● 사례 3 점자 안내책 : 점자 안내책자는 조사 대상 관광지 8곳 중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정문 관광안내소에만 비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곡성의 경우도 점자 안내책자가 정문 관광안내소 내에 비치되어 있다는 정보는 미리 알 수 없었다.

● 사례 4 촉지 안내판 : 촉지 안내판은 비교적 찾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촉지 안내판에는 열린관광지용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있었다. 하지만 촉지안내판 주변에 쓰레기통 등 장애물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 <그림9> 이용 가능한 순천의 촉지안내판과 주변 환경



▲ <그림10> 이용하기 어려운 곡성의 촉지 안내판과 주변 환경

• 사례 5 관광지 연계 교통 : 모니터링 단원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기차와 장애인 콜택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역별로 이용 방법과 횟수, 사전예약 여부,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이동 등 이용가능 조건이 천차만별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테면, 군산은 3일전 사전 예약제다. 사전 예약을 했지만 군산의 모니터링을 마치고 대전으로 귀가하려던 단원은 관광지에서 3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삼척의 경우는 사전 예약제면서 관광지와 가까운 태백역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관광지(삼척)으로 이동이 불가능 했다. 삼척 모니터링 단원의 경우, 전동휠체어로 산길을 달려 관광지에 도착했다. 태백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 사례 6 장애인용 매표소 : 장애인용 매표소가 비장애인 단체 관람객 예매창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용인 의 매표소는 장애인 주자장과 가깝고 이동로도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장애인용 매표소가 있다고 착각 할 수 있다. 장애인용 매표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단체매표' 창구라며 담당직원은 비장애인용 매표소를 안내해줬다.

<그림11>를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비장애인용 매표소에서 표를 구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저상 매표소가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창구 직원은 모르고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⁵⁾를 보면, '매표소', '장애인주차장'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비로 용인 민속촌은 90,600,000원을 사용하였다.



▲ <그림11> 용인 민속촌의 장애인용 매표소는 단체예매 창구로 운영중이다.(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객은 키높이에 있는 일반 매표소를 이용해야 한다.(우)창구로 운영중이다.(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객은 키높이에 있는 일반 매표소를 이용해야 한다.(우)

• 사례 7 주요 이동로 : 관광체험을 하고 멋진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관광지 내부에서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 이동로가 접근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동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거나 연결 부분이 미흡하고 굴곡과 급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곳이 더러 있었다.

조사대상 관광지 중 가장 힘든 이동로는 낙안과 군산⁽⁶⁾이었다. 낙안 읍성은 주요 이동로가 자갈이 섞인 흙길이었다. 바퀴가 큰 전동 휠체어로 이동한 모니터링 단원은 약 5시간 정도의 모니터링 시간 동안 혼자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처럼 힘들어 했다. 이곳은 고령의 노약자 관광객이 많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대여하는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간간히 목격하였다. 하지만 수동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은 전동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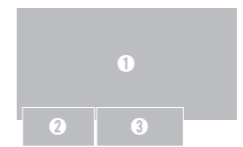
▲ <그림12> 이용 가능한 용인의 정돈된 흙길 이동로

▲ <그림13> 이용 어려운 순천 낙안읍성의 흙길 이동로

• 사례 8 체험상품의 대여와 판매 : 편의점, 카페, 식당, 기념품점 등 일반 판매시설의 경우는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했다. 이런 곳은 혼자서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이용 가능한 곳이 많았다. 판매시설의 경우, 의자와 식탁이 일체형인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식사와 차를 마시며 휴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미비한 곳이 많았다. 특히 체험상품을 대여, 판매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접근과 이용이 힘들었다. 대표적으로 의상체험이나 포토 존에는 장애인용 의상이나 보조 인력서비스, 편의시설이 없었다.

(5) 2015 열린관광지 조성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6) 군산의 경우 야외 이동로의 문제로 모니터링 진행이 어려워 2차와 3차 모니터링에서는 제외되었다.



- ① 순천낙안읍성의 이동로는 정리되지 않은 흙길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이용이 어렵다.
- ② 부산 송도 거북섬 구름다리 이동로는 중간에 계단이 있어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이용이 어렵다.
- ③ 곡성 가정역에서 삼진강으로 연결된 이동로는 계단만 있어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이용이 어렵다.



▲〈그림14〉 보조 인력이 있는 용인의 염색 체험장



▲〈그림15〉 용품과 보조 인력이 없는 낙안 전통혼례 체험장

낙안읍성의 전통혼례 체험장도 그러했다. 체험장 마당까지 접근은 가능했지만 장애인 전용 의상이 없고 체험을 보조해주는 인력도 없었다.

● 사례 9 관광시설 출입구의 정보안내 : 용인 민속촌의 주요 관광시설 중 전통혼례 공연이 열리는 양반가 주출입구는 〈그림 16〉처럼 계단만 있고 경사로는 없다. 주출입구 안내판은 해당 관광시설 내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다. 양반가 주출입구에서 2분 거리에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구가 있었다. 부출입구는 근처 나무 때문에 찾기 쉽지 않았다.

〈그림 17〉에서 보듯이 부출입구를 이용해 양반가 내부로 들어가면, 전통 가옥구조의 턱마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공연이 열리는 마당까지 경사로는 계속 설치되어 있었다. 용인 민속촌을 여러 차례 왔던 모니터링 단원은, 부출입구를 이용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관광 시설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정보가 없어서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림16〉 장애인용 정보가 없는 용인 한국민속촌 양반가 출입구



▲〈그림17〉 양반가 내부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있다.

장애를 가진 위인 스티븐 호킹

무계력병에도 불구하고 블랙홀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스티븐 호킹은
 2012년 WHO 세계장애보고서 발간 환영사에서 "장애는 성공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962년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입학한 뒤 갑자기 무계력병이 발병해
 1~2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병으로 인해 근육이 점점 마비돼 책 한 장 넘기기 힘들었고, 한 줄의 공식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암산으로 수식을 푸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결국 박사학위를 따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dliblib.net/jarChives/236693>

지역모니터링센터

- 서울(대표 이권희) T 02-833-309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 부산(대표 김호상) T 051-582-3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 대전(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지 15-4 동진프라자 332호
- 광주(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 울산(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 경기(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 경남(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 전북(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내 4길 6-23
- 충남(대표 박종균) T 041-631-069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 제주(대표 김성완) T 064-751-8096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

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작성, 이렇게 한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UNCRPD NGO연대 보고서 총괄위원장

인권 시대 속 장애인

장애인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인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말한다. 오히려 ‘권리 인플레이션(Rights Inflation)’ 내지 ‘인권 인플레이션(Human Rights Inflation)’이 문제라고 할 정도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인권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인권 수준은 낙제점이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강자들이 만들어놓은 시혜적 환경에 알아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1948년 UN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천부적 권리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의 양대 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7개의 국제인권조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장애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한 탓에 장애인 인권 신장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평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인해 UN에서 2006년 12월에 채택된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국회가 CRPD를 비준하였고, 2009년 1월 10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되었다. 그러나 CRPD 제25조 마항은 유보된 채 비준되었고,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않았다.

현실과 다르게 기술되는 국가보고서

UN에서 진행된 CRPD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단체들은 적극 관여하여 이동성과 자립생활 항목의 제정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시혜적 객체’에서 ‘권리적 주체’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

가받고 있다. 문제는 CRPD의 각 조항의 내용을 우리 사회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들 하지만 CRPD 조항의 내용이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그 실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단체들은 CRPD의 국내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NGO보고서를 활용한다. 정부가 작성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국가보고서 의견과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 과거 정부가 작성한 1차 국가보고서는 물론 이번에 제출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처한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66개 조항의 최종견해 이끌어낸 연대 활동, 지지부진한 정부의 추진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당사자의 감수성과 경험이 담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였다. 2013년 2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이하 연대)가 2013년 4월 정식 출범하였고, 6개의 분과회의(Working Group)를 운영하여 NGO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66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견해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과정은 정부보고서 제출, 쟁점목록(List of Issues) 송부,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 응답,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 입수, 정부보고서 심의를 거친 최종견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당사국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인정하고, 각 조항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내용을 기술한 국가보고서는 장애계로부터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사를 앞둔 연대활동의 핵심 ‘장애감수성’

장애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심리사회적 공감대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온 장애인정책들이 종종 헛다리를 짚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만, 근본적 이유는 장애인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공무원, 정책입안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관점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문제의 심각성의 체감도도 서로 달랐기에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문제가, 특히 장애인 인권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한국정부는 CRPD 제35조에 의해 2·3차 국가병합보고서를 2019년 3월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차보고서 심사가 연기되어 2·3차 병합보고서 제출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는 2017년 5월부터 질의목록 초안 작성 및 연대참여를 제안하였고, 현재 24개의 단체가 가입하여 7개의 분과회의(Working group)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있다. 연대 초안은 올해 10월말까지 작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대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연대 회칙 제2조에 기술되어 있는 활동목적은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관련 NGO 질의목록, NGO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한국 NGO의 의견 제시, 3. 기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약 관련 활동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될 관점은 “장애감수성”이다. 이는 NGO보고서 작성 계획, 추진, 마무리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장애감수성의 구성요소 “CRPD 제3조 일반원칙”

우리 연대는 장애감수성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CRPD 제3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활용하고 있다. 이 일반원칙은 CRPD 각 조항마다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한국정부의 2·3차 병합보고서에 기술된 각 항목들의 내용의 진위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일반원칙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CRPD 제3조 일반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비차별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

의 인정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녀의 평등
-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결과적 평등!

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초안)을 읽어본 사람이면 쉽게 발견하는 공통된 표현이 있다.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검토할 예정이다’, ‘노력하였다’,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등이 그것이다. 간간히 “법률을 제정하였다”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언뜻 보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질의한 쟁점목록을 충실하게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할 맘이 있다는 표현방식이다. 이를 법률 측면, 예산 측면, 전문 인력 측면, 프로그램 측면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들이 이미 각종 토론회나 실태조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되었다.

우리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기회의 평등을 거부한다. 그동안 17개에 이르는 각종 장애인법률들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법률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장애인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각종 문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전형적인 기회 평등의 제공을 마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로 인해 장애인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과 직간접 관련된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결과적 평등이 낮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앞으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심의날짜가 제네바에서 2020년 언제 이루어질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연대의 이번 NGO보고서 작성은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기술될 것이다. 장애감수성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결과적 평등을 향유하는 분석과 평가 그리고 대안 제시는 24개 연대단체의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보고서총괄위원회의, 긴밀한 분과회의(Working Group)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워크숍,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 교육, NGO보고서(초안) 공청회, 감수성 실태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 아닌 ‘사람’을 보아야

류승연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작가

일명 ‘장판’이라 불리는 장애인판의 오래된 질문이 있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가. 물론 두 가지가 함께 발맞춰 가는 게 ‘정답’이지만, 그 정답은 너무나 뻔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올해 11살이 된 지적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엄마다. 이전엔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쳐 희생하면 아들의 장애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며 극복해야 할 것은 아들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정책적인 한계에 자꾸 부딪힌다. ‘아, 정책이 먼저인가 보구나’.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다 보니 이제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됐다. 돌고 도는 뫼비우스의 띠, 엄마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관점을 바꾸면 다른 게 보여요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는 최근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을 겪었다. 주인공은 아들이다. 아들은 특수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아직 말을 못 하고 옷을 입거나 밥 먹는 등의 일상적인 일도 혼자 힘으로 아무지게 해결하진 못한다.

며칠 전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다. 아들이 수업 중 엎드려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교실 문을 열고 오줌을 싸다는 것이다. 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발달장애인 학생이 교실 문밖에 오줌을 싼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얼핏 보면 아직 기본적인 배변 예절도 배우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으로 보일 법도 하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정을 알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다. 정반대의 모습이 보인다. 오히려 한 단계 발전한, ‘성장의 모

습’이 보인다.

아들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다. 평상시엔 배변 연습이 잘 되어 있으나 유독 잠을 잘 때는 조절이 되지 않는다. 낮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다. 엎드려 잠이 들면 엎드린 채로 쉬~ 앉아서 잠이 들면 앉은 채로 쉬~.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실에서 자다가 실수를 해 옷을 갈아입고 온 적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을 지나며 아들은 잠자는 동안 기저귀 떼기 맹훈련을 받았다. 잠 들고 나서도 수시로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화장실 다녀오는 연습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이불 빨래를 수십 번 해야 했지만 어쨌든 아들은 자다가도 쉬가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 나갔다.

이날의 행동은 그래서 나왔다. 수업 중 잠이 들었고 이전 같으면 잠든 채로 옷을 적셨을 테지만 이제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깨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잠을 자다가 요의를 느낀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교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들의 교실은 온돌 교실이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는다.

말은 못하는데 마음은 급하다. 화장실에 가려면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 혼자서 실내화를 신으려고 끙끙대는데 잘 신경지지 않는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임계점에 다다른 순간 아들은 바지를 내렸다. 옷을 적시면 안 된다는 깨우침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성장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날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바라보면 주변에선 문제행동을 잡을 대책을 세우게 된다. 아마 기저귀를 요청하는 등의 대책이 논의될 것이다. 과거엔 학교에서 잠들었을 때 바지에 실수할까봐 예비 기저귀를 보내곤 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기저귀를 보내 ‘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게 아닌, 아들이 교실 문을 여는 순간 특수교사나 공익근무요원이 재빨리 따라붙어 실내화 신는 걸 도와주는 것으로 지원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아들은 혼자서 실내화를 신으려면 10초 이상이 걸린다. 평소엔 반복연습을 통해 혼자서 신발 신는 걸 익혀야 한다. 하지만 ‘잠자다 깬’ 특별한 상황에서만 어른이 실내화 신는 것을 도와주면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화장실까지는 5초도 걸리지 않는다. 바지도 적시지 않고, 교실 문밖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들 역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

물론 교실 문밖에 쉬한 게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실수하는 발달장애인을 무조건 이해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다. 장애인, 특히 그중에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바라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행동의 원인과 그 안에서의 사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증인’에선 이런 점이 부각됐다.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보라”고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겪는 감각의 문제를 조명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맞는 말이다. 이진균이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아도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 같은 것이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내 관점에서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선량한 마음을 지닌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신공을 적재적소에서 발휘한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였구나”. 이러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로 무장한 서적들이 출판계의 화두로 자리 잡은 것도 관계간의 소통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량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보통의 우리들이 유독 장애인을 대할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곤 한다. 내 옆의 모르는 타인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자주 마주쳐 온 관계라도 웬지 좀 께롭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굳이 내 삶에 엮여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왜일까?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을까? 왜 장애인에겐 다가가고 싶지가 않을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변화

비장애인으로 30년 넘게 살아오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낳았다. 단지 내 자식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이전엔 알지 못했던 ‘세상의 차가움’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고작 10년이 지났을 뿐인데 비장애인의 삶을 계속 살았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아들로 인해 겪게 된 별의별 일. 그 대부분은 아들이 ‘나

와는 다른 장애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슬픈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이다. 장애가 있으면 사람은 안 보이고 ‘장애’ 그 자체로만 보인다.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장애’가 온통 개인을 덮어버려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 대 사람 간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라 장애 그 자체니 장애인에게 마음을 열어 볼 여유 따윈 애초에 갖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닫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그래서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 거창한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다. 장애인이 장애 그 자체가 아닌 사람(단지 장애가 있을 뿐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당연한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들이 교실 문밖에 오줌을 쏘다. 이것이 문제행동인지 아닌지 왜 그랬는지 알기 위해선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을 장애 그 자체로 바라보는 한 장애인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마음은 애초에 생겨나질 않는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책을 다루는 이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과제다. 왜냐면 장애와 장애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지원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줄 것이냐 신발 신는 걸 도울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선 장애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학생들의 장애인식인지 우리 어른들의 장애인식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라도 하지 우리 어른들은 어떡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한 10년은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다. 과도기가 될 앞으로 10년 역시 힘들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나머지 생은 그리 힘들지 않기를 바라본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들로 힘들지 않은 생을 살고 싶다. 그런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 다동·무교동·종로·청계 관광특구 44개 업소 장애인 등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

김병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팀장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사)한국유니버설협회가 민간보조 사업자로 진행한 서울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이 2019년 2월 마무리되었다. 2018년 5월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서울시 무장애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2018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원년을 맞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주요 관광명소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편의점, 숙박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 등의 관광약자가 주로 찾는 도심의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접근성 개선공사다. 그 첫 대상으로 서울시청과 인접한 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종로·청계 관광특구를 2018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 소매상점, 숙박시설 등 공중 이용시설이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소규모 시설들이다.

개선 내용은 접근로 개선, 출입구 단차제거, 자동문 설치, 내부 이동통로 확보, 화장실 개선 등이며,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 일부를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매우 부족한 숙박업소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객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업종별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 설명회와 희망 업소 신청접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전 접근성 모니터링, 신청 업체별 전문가 조사단의 현장 실사, 설계, 시공, 사후 모니터링, 시공 개선 순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조사단은 추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44개 개선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다. 대상시설은 자부담 10%의 조건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접근성개선 사업성과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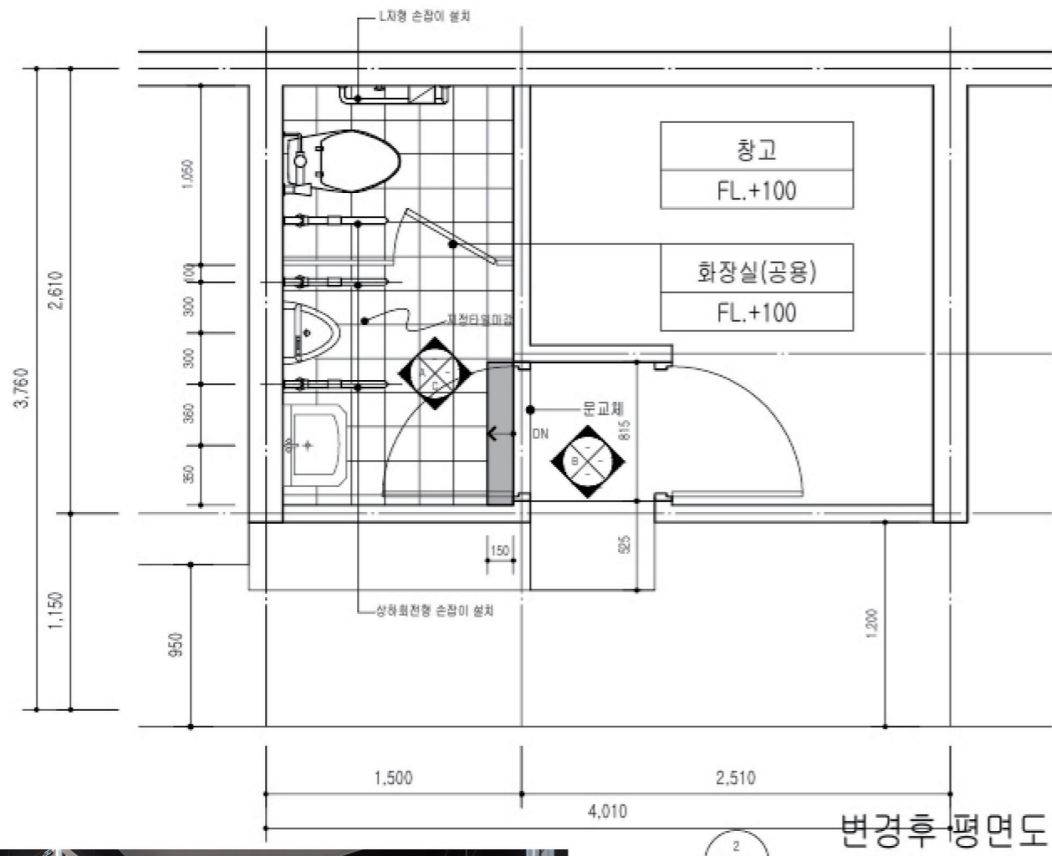
지역	업종	참여 업소	세부개선 결과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음식점	8	· 자동문 개선 : 7개 업소
	카페	3	· 화장실 개선 : 2개 업소
	기타	3	· 경사로 개선 : 8개 업소
종로·청계 관광특구	음식점	11	· 자동문 개선 : 7개 업소
	카페	2	· 화장실 개선 : 1개 업소
	기타	2	· 경사로 개선 : 4개 업소
공통	음식점	14	· 이동식 경사로 및 도움 벨 배부
	카페	1	
총 합		44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구축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접근성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실천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업소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시 체험의 폭을 넓히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세계적 도시이자 관광지인 서울시에서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접근성 개선 실천을 위한 소중한 경험과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소는 물론 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카페 등 관광객 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는 서울시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무장애관광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관광약자의 여행편의 제고에 활용된다. 특히 사업 대상 지역인 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종로·청계 관광특구를 무장애 관광 시범지역으로 조성하여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소가 관광약자를 위한 대표적 모범업소가 되고, 인근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이러한 모범사례 구축을 통해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참여하는 민간시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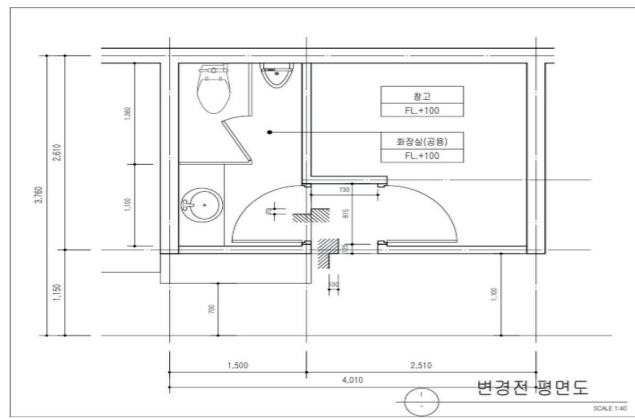


변경후 평면도

SCALE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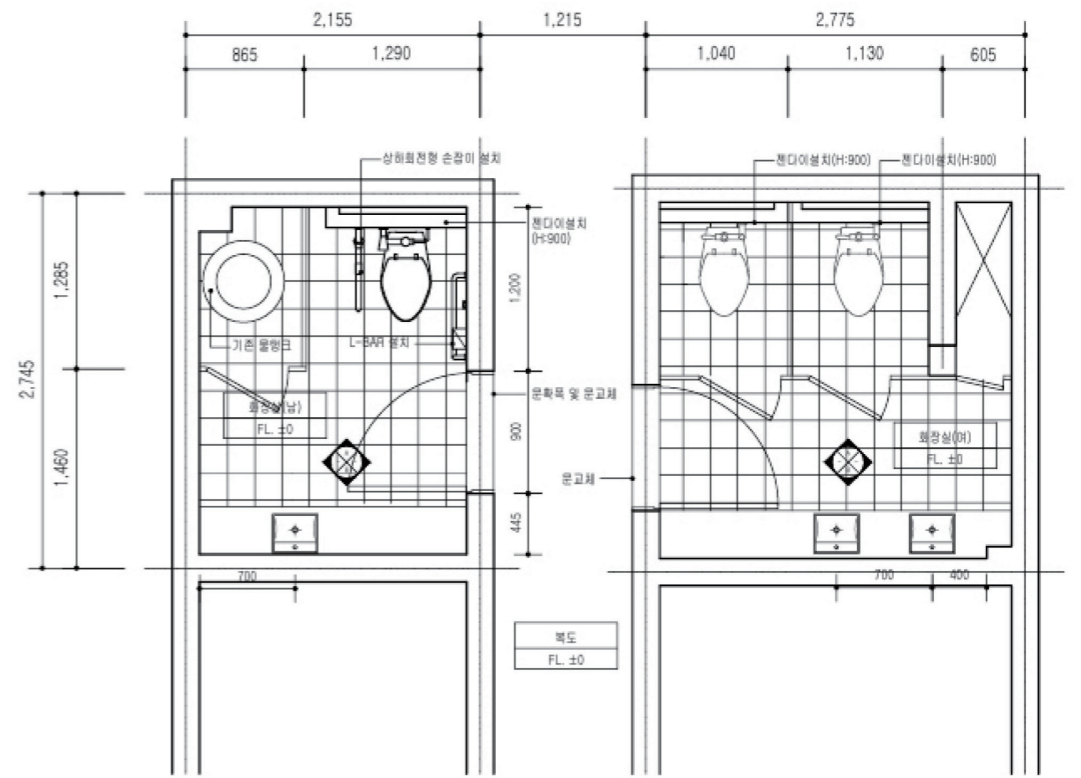


화장실 개선공사 사례 1
업체명 : 장안문



변경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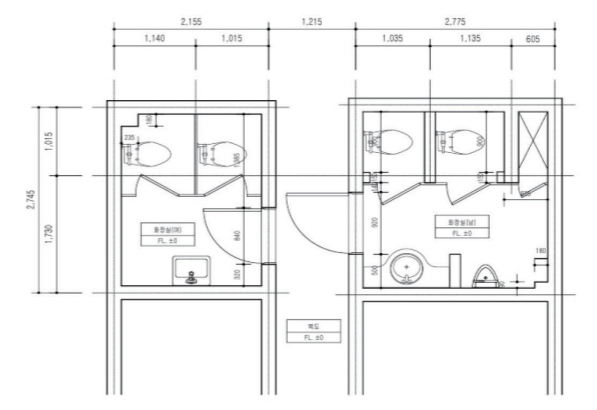
SCALE 1:40



변경후 평면도

SCALE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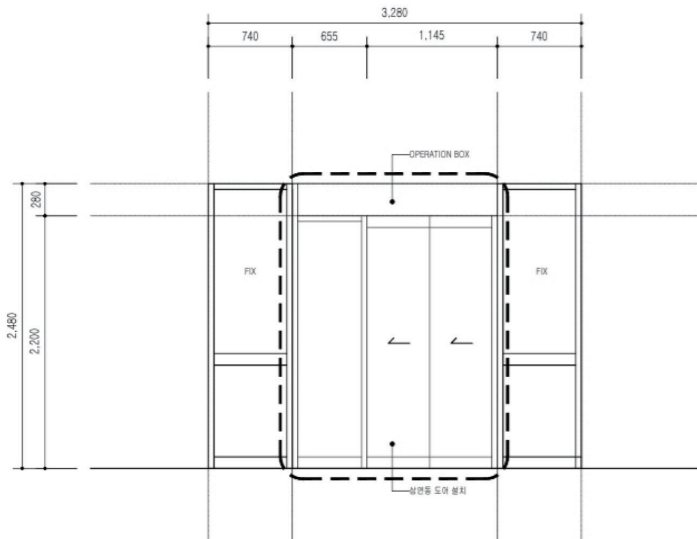
화장실 개선공사 사례 2
업체명 : 바캄스 커피



변경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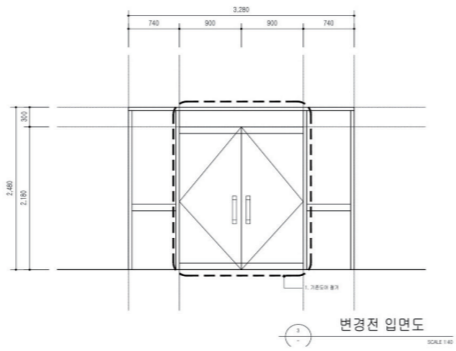
SCALE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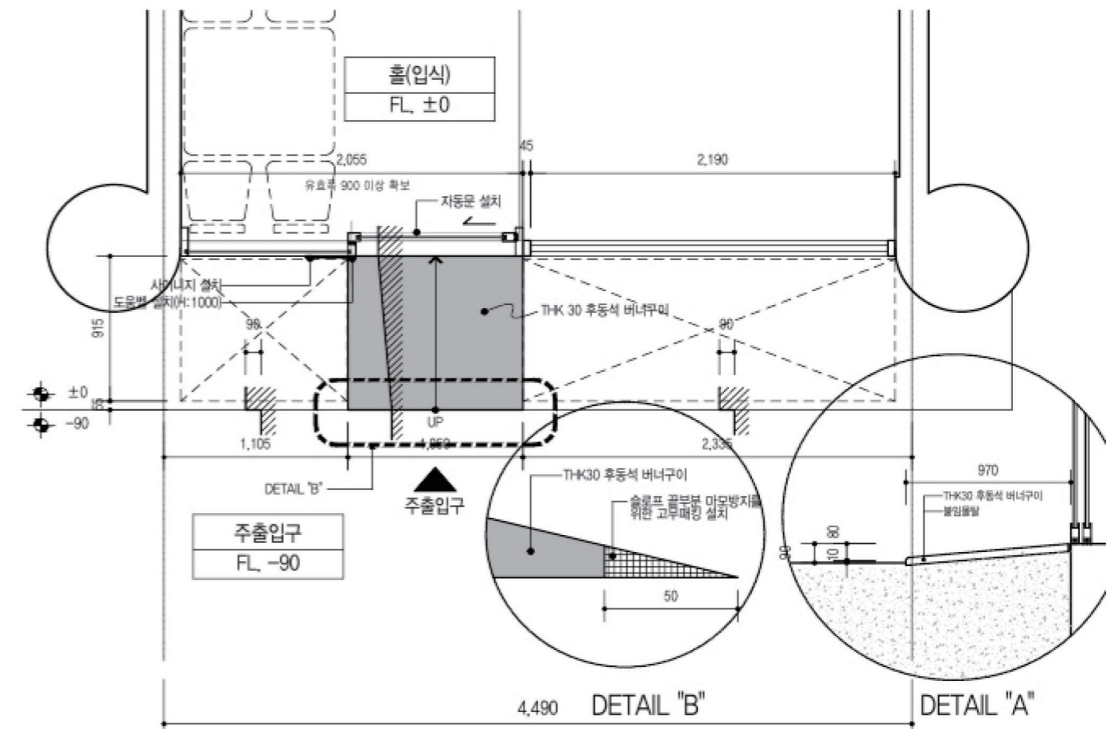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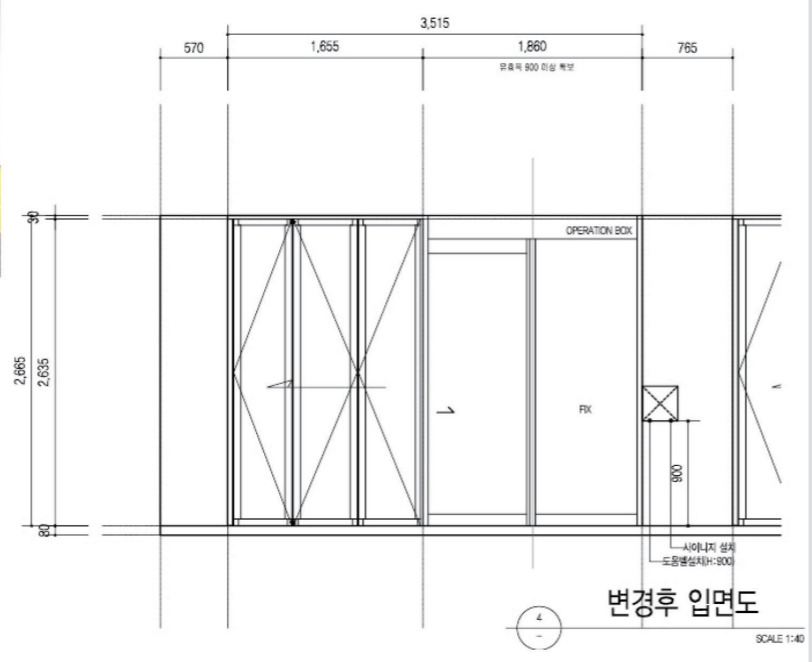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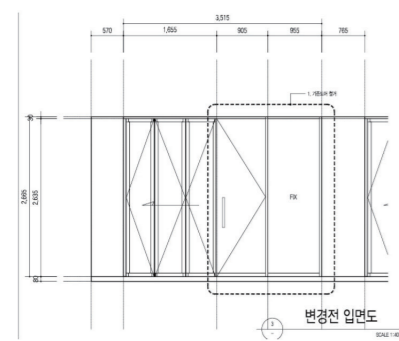


변경후 입면도
SCALE 1:40

자동문 개선공사 사례 1
업체명 : 삼원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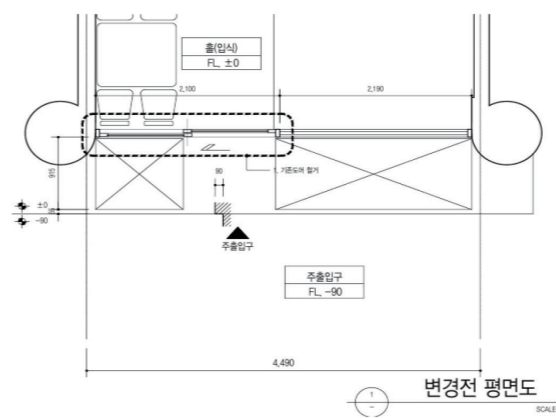
자동문 개선공사 사례 2
업체명 : 족의 한수



변경후 평면도
SCALE 1:40



자동문+경사로 개선공사 사례 1
업체명 : 바다횃집



변경전 평면도
SCALE 1:40



평범한 장애인을 기다리며 이한 감독의 <증인>

류미레 큰 영상, 독립영화 감독

자폐성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증인>이 착한 영화라는 입소문 속에서 무난한 흥행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총 제작비 80억원을 들인 <증인>의 손익분기점은 200만명, 하지만 개봉 첫 주 관객수가 73만 명을 약간 넘는 터라 개봉관에서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해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일 박스오피스를 지켜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영화를 먼저 본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250만명이 넘는 관객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주인공이라서 기대하며 극장을 찾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현실을 반영하기에 그 현실을 조목조목 읽어보면서 <증인>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이룬 성취

<증인>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주인공 순호는 민변 출신 파이터 변호사였다가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대형 로펌에 취직한 변호사입니다. 순호는 자폐 소녀가 살인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사건을 맡게 되면서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순호가 소속되어있는 로펌의 대표는 세속적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자살, 자폐, 가정부, 단어들만으로도 화제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란 듯이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국선변호인으로 순호를 투입한 겁니다. 정의로운 변호사였다가 집안의 빚을 갚는 동안만 잠깐 속물이 되기로 결심한 순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념을 어디까지 숨겨야하는지에 대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순호는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았기에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의 증언이 효력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인>의 초반부는 법정영화처럼 전개됩니다. 지우의 시점에서 사건 당시를 보여 주긴 하지만 진상은 모릅니다. 감독이 보여준 화면만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노련하고 경험 많은 순호의 상대방에는 검사 희중이 있습니다. 젊고 경험은 없지만 똑똑하고 장애인권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검사 희중은 지우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장면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범죄현

장의 목격자인 경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늘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지요. 군사독재라는 폭력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살인의 추억>의 고문과도 같은 취조행태는 정말 문제적이었지요.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 용구 씨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군사독재시절이 아닌데도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경찰들은 용구 씨의 장애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심문을 하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살인범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에 와서야 비로소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져야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검사 희중은 지우가 당황하지 않도록 지우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지우가 믿을만한 사람을 동석한 상태에서 지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촬영된 지우의 증언영상을 살펴본 전문가는 순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 검사님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희중의 장애감수성은 자폐성 장애인을 동생으로 둔 개인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사회의 장애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구태여 이런 설정이 필요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본적인 인권감수성이 갖춰진다는 설정은 좀 슬프잖아요. 발달장애인법 제12조 3항에는 발달장애인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면 재판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당사자, 검사, 보호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척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인>에서는 이 법이 반쯤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희중의 사전조사에서는 지켜졌던 이 법 조항이 지우가 법정에서 설 때에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우는 혼자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반쯤만 지켜졌어도 이 영화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낮선 환경이 지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영화는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순호가 유튜브를 봅니다. 순호가 보는 것은 한때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던 자폐성 장애인의 감각 과민 현상을 담은 해외영상입니다. 순호가 지우와 친해지기 위해 하교길을 동행할 때, 개 짖는소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은 유튜브 영상과 잘 호응합니다. 또한 지우가 법원이라는 낯선 상황을 견디면서 재판정까지 가는 과정 또한 아주 효과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영화 <증인>은 관객들이 순호의 입장에서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고맙습니다.

생각해볼 문제

법정 드라마로서 이 영화의 팽팽한 대립지점은 지우의 증언에 대한 신뢰 여부에

있습니다. 희중이 지우의 증언을 믿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명제를 굳건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순호의 반박 전략 또한 이 명제에 대한 공격에 있지 않습니다. 지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지우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순호의 입장입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던 관계에 파국이 오는 것도 지우의 장애를 ‘정신병 같은’ 것이라고 공격한 순호의 무례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영화에서 빠져나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화가 의심하지 않은 명제, 그래서 영화 속 등장인물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명제는 참일까요? 영국방송창작산업장애네트워크(Broadcasting and Creative Industries Disability Network, 이하 BCIDN)의 ‘영국의 영상물에 대한 장애인 참여 가이드’에 따르면 ‘장애인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생각은 피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요?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명제에 대한 의문은 저만 가진 게 아니라서 지적 장애인 자녀를 둔 류승연 작가님이 자폐성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수소문해서 “무슨 소리냐? 거짓말 잘만 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이미 칼럼에 기고하셨더군요.

신윤미 아주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또한 “거짓말이란 게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한 뒤 그 입장을 조절하기 위해 속이는 능력이므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자폐의 특성상 일부 가능한 설정”이긴 하지만 “학습과 훈련에 의해 사회성을 비롯한 여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폐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¹⁾

반론도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인 장지용 씨는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라고 고민하는 판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집단의 특성으로 확정짓는 것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희중의 동생이 자폐인이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중이 동생의 특성을 자폐인 일반으로 확정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미덕은 지우라는 사람을 개별자로 풍부하게 인식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우라는 사람이 자폐라는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퍼즐과 파란색 젤리를 좋아하고 특정 애니메이션을 외울 만큼 즐겨볼 뿐 아니라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친구 까지도 감쌀 만큼 품이

(1) 씨네 21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찬찬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빛납니다.

그런데 희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동생의 특성을 자폐인 일반의 특성으로 격상시킨 후 지우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문제는 영화를 본 관객들이 '자폐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영화나 드라마가 어떻게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지를 조금은 압니다.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았을 때, 제가 촬영하고 있던 장애인센터의 부모님들은 이웃들로부터 "댁의 아이는 뭘 잘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장애인 중에서도 천재는 소수이듯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천재는 소수인데 발달장애인이 등장하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은 너무나 쉽게 서번트증후군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등장시킵니다. <증인>이 이 경향을 피해갔다는 것은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명제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답습하고 있는, '장애인은 천사'라는 고정관념의 변종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쿼터제를 다시 주장합니다

<증인>의 잘못을 제가 쓰고 있지만 저는 <증인>에 찬성하고 <증인>을 지지합니다. 앞서 언급한 BCIDN의 가이드에는 '일일연속극에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등장인물이 장애를 갖는 설정을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든 장애인을 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장애인권감수성으로 장애현실을 섬세하게 잘 재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증인>처럼 이렇게 논쟁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회의하기 전에 그 한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이토록 강력합니다.

오랜만에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나와서 흥행에도 성공하고 이런 저런 토론도 불러일으켜서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꼭 한 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효과 말고도 <증인>이 끼치는 영향은 의미 있습니다. 배우 김향기 씨가 맑은 눈망울로 순호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라고 물을 때 이 물음은 단지 변호사 순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게 합니다. 영화 <증인>을 보고 나면 누구든 한동안은 '나는 좋은 사람일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효과를 한 번 누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학대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체계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장애인학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체계의 주요 문제들을 공론화함으로써, 제주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결 방안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균 관장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오상 관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은종균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강화와 학대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권오상 관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학대 현황과 과제’를 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최은미 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동효 대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이 참여했다.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



그루터기 장애인학교 개교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1월 23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그루터기 장애인 학교’를 3월 22일 개교했다. 울산 북구지역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현정 학교장이 추진하고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이 공간을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천연 향료와 재료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심심회복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이다. 자신이 사용할 제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아성취감, 촉각과 감각을 높일 수 있다. 또 자기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제11회 전국 장애인 인권활동가 대회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장애인 인권활동가 대회를 경기도 양평 일대에서 진행했다. 26일 개회식과 만찬에서는 지역포럼 소개, 포럼의 10년 발자취를 담은 영상 상영이 있었다. 27일 정책워크숍에서는 정책의제 아이템 선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정책아이디어 발표 등의 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27일에는 양평 세미원과 두물머리,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등의 관광일정을 진행하였다.



물 위의 모든 것, 스코트라

- 수상태양광, 해양레저, 수상플로팅, 수상건설 등 수상 부유구조체 설계, 제작 및 시공 전문기업으로서 안전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4년부터 개발된 멀티룸 플로트는 일반형 플로트보다 높은 강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플로트 위 수상부유식 건축물 제작과 중장비 주행 테스트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

Wherever

백령도에서 제주도, 독도까지 전국 어디든

What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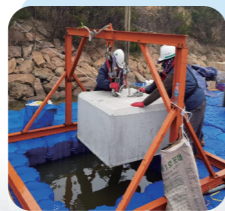
부교, 계류시설을 포함한 물 위의 모든 것을

However

설계, 제조, 시공, 임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드립니다.

적용 사례



Everything on the water 물 위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스코트라에서 설계하여 18년도에 완공한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18.7MW) 전경입니다.

스코트라, 국내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

총 40MW 이상의 수상태양광 수행 경험과 국내 유일의 댐 시공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고 품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 유휴수면 사용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소 부지 한계 극복
- 환경영향평가로 생태보존성 우수성 입증
- 수면냉각효과에 따른 발전효율 향상

1,200건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수상플로팅 전문기업!



일반형 플로트 및 전 세계 유일의 특허제품인 멀티룸플로트를 활용한 계류장, 마리나시설, 수상레저시설, 부잔교 및 수상태양광 부유구조체 등의 설계·제조·설치·임대 등 수상플로팅 사업 전반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